

진안, 정부혁신 추진평가 우수기관

5천만원 재정인센티브... 군민과의 소통 분야 전국 최상위권 점수

진안군은 2018년도 정부 혁신 추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정부 혁신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혁신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정부혁신 3대 전략(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11개 세부 사례 평가로 진행됐다.

진안군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중 상위 25%에 해당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진안군 대표 혁신사례인 △산림민원 해결을 위한 산림패트롤 서비스 △주민이 행복한 진안군 쓰레기 3NO운동 실천!! △갈이의 가치 '진안홍삼축제는 동행입니다' △U-ICT를 통한 노지 인삼 무인방제 시스템 구축 △마을축제를 통한 농촌 공동체 활성화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정신건강·치매 안심전문가 양성 등이 사회적 약자와 군민참여, 공동체 의식 제고 등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 혁신적 정책으로 인정받아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혁신 인프라 조성 분야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상설화 등 군민과의 소통과 상향식 정책참여 분야

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점수를 받았다.

이항로 군수는 "민선6기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공약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이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혁신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상향식 정책추진과 군민과 함께 하는 혁신적 정책들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이 우리 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2018년 정부혁신 평가 결과를 통해 민선 7기 혁신기반을 내실 있게 다져나가는 한편, 향후 각종 정책 전반에 소통과 협력 강화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지난 28일 무주군 사랑의 열매 봉사단원들이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무주군에 이어지는 온정의 손길

이름건설, 이름, CS건설 임직원 성금 전달 바르게살기운동무주군협의회 장학금 기탁

무주군은 지난 28일 무주군 사랑의 열매 봉사단원들이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무주와인생산자협회에서 200만원, (유)이름건설에서 100만원, (주)이름에서 100만원을 기탁해줬다고 밝혔다.

무주군 사랑의 열매 봉사단 권정심 단장은 "평소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과 이웃들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다"라며 "회원들도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모은 만큼 우리 이웃들에게 뜻있게 쓰여 졌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무주와인생산자협회 이재국 회장은 "올해도 머무와인이 무주를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며 "그 자부심과 사회적 책임감으로 회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유)이름건설 서중운 대표와 (주)이름 서정림 대표는 "올 한해 잘 보내고 좋은 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 보람이 있다"라며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좋겠고 더 큰 선정을 넣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바르게살기운동무주군협의회에서는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해 관심을 모았다. 김만성 회장은 "학교 폭력방지 캠페인 등을 벌이는 등 평소 학교와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라며 "우리 학생들이 기쁘고 당당하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7일에는 CS건설 김남규 대표와 임직원들이 295만원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김남규 대표는 "무주에 터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서 그동안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있어 기쁘다"라며 "고맙게도 직원들이 선뜻 마음을 모아주시는 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27일과 28일 기탁 받은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은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 덕분에 훈훈한 연말이 되고 있다"라며 "우리 군에 나눔과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오성 세천 정비사업' 특교세 10억원 확보

연내 준공 목표로 추진

장수군은 '오성 세천 정비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오성세천 정비사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1547번지 오성 세천 일원의 전체 연장 1.0km로 세천 호안 및 부속시설

물 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안료를 위해 상반기 실시계획을 시작해 연내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지역현안과 재난안전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 편성하는 사업비로 장수군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오성세천'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중앙부처에 사업건의를 위하여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장영수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등의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2019 기해년(己亥年) 함께 맞이해요

무주군, 1월 1일 향로산서 해맞이 행사

"무주군은 2019 기해년(己亥年) 해맞이 행사가 무주읍 발전협의회(회장 박동열)주관으로 오는 1월 1일 무주를 향로산 제1전망대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희망무주! 2019"라는 슬로건을 걸고 개최되는 이날 행사는 오전 7시 20분부터 덕담을 나누며 한 해 결심을 다지는 만세삼창과 새해의

감격을 추억으로 남기는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읍 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재물이 넘쳐나고 커다란 복이 들어온다는 황금돼지 해의 기운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새해 맞이시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무주읍 주민들은 "올해도 향로산

에서 해맞이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라며 "가족들과 같이 올라가서 소원도 빌고 떡국도 먹으면서 따뜻하게 2019년을 열어보려고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무주군 해맞이 행사는 2019년 무주읍을 시작으로 무풍과 설천, 적상, 안성, 부남면을 돌며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귀농귀촌 멘토단 운영 평가회

진안군과 진안군귀농귀촌인협의회(회장 박영복)는 지난 28일 마을만들기센터에서 귀농귀촌 멘토단 운영 연말평가회를 가졌다.

귀농귀촌 멘토단은 선도농업인과 귀농귀촌인 간 멘토·멘티 결연으로 농업기술과 농촌생활 적응 노하우 전수 등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멘토 12명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운영됐다.

이날 평가회를 통해 선진농업 관내 귀농·귀촌인과 멘토단은 함께 토론하며 귀농·귀촌인의 고충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의 귀농 귀촌인구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2019년에는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